

나눌수록 넉넉해지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서울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품-아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품-아이 사업 담당자들과 서포터즈들.

서울 도봉산 자락 아래 방학동은 다세대 주택과 낮은 건물, 좁은 골목길 등 옛 동네 마을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젊은 세대보다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노인들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정,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많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보급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급증했고, 수급자가 많아 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돌봄을 실천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품-아이(품-이)' 사업을 기획했다.

“사업명 ‘품-아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면서 품을 지고 갚는다는 ‘품앗이’의 방언이기도 하면서 교환(공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terchange’의 I와 품을 합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관계를 축적하고, 이런 관계의 축적이 기반이 되어 서로 간의 품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도록 하는

것이 품-아이 사업의 방향입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박은하 팀장은 ‘공급자 중심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동등한 존재로 관계 맺으며 사회적 관계망과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품-아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서로의 품을 나누는 돌봄공동체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공적 서비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서로 돌봄에 주목했다. 박은하 팀장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일상적인 도움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들은 무거운 짐 옮기기, 병원 동행, 운동 파트너처럼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분들은 두 배가 넘었고요. 주민

들이 스스로 서로의 품을 나누는 돌봄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했죠.”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자 기존의 소모임을 적극 활용하며 온라인카페, 오픈채팅방 등으로 주민간의 관계를 만들어나갔다. 캠페인 등 이벤트 형식의 대면 홍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서포터즈들과 품나눔 이야기를 14편의 만화로 만들어 알렸다. 주민들이 물품을 기증하고 교환하는 품-아이 장터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홈쇼핑처럼 소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해 물건을 교환하도록 했다. 분기별로 운영하던 품-아이 장터는 주민들의 호응으로 복지관 2층에 자리 잡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나누고 도우며 맺어가는 따스한 인연

품-아이 사업은 주민간 서로 돌봄이라는 ‘관계’를 다리기 때문에 정형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꾸준한 노력은 방학동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두 모녀인 김혜선(가명)씨와 딸 이현진(가명)씨는 품-아이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바뀌었다. “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이런 느낌을 우리 딸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연말 공유회에 초대했지요.” 소통을 거의 하지 않던 딸 이현진 씨는 공동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했다. 모녀는 품-아이 활동으로 조금씩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오픈채팅방은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을 공유하며 참여도 이끌어냈다. “한 회원이 여름이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분이 ‘나도 가르쳐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같이 동대문시장에 가서 천과 재료를 사오고,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품나눔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인형 만드는 법, 테이프 자국 쉽게 떼는 법, 김치나눔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도와주는 것 등 소소하지만 따스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 받는 사람의 경계가 없도록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는 새해맞이 잔치가 열리기도 했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네트워크의 힘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했다.

시작은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이 했다. 조합 공간을 활용해 운영하는 청소년식당에서 떡국을 만들기로 하고, 그날 초청할 노인들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복지관은 ‘좋은 일은 합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2층 품-아이 장터에서 장난감을 고르고 있는 아이들.



떡국과 반찬을 준비하는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 전명숙 이사장과 주민들.

께 하자’며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방학동의 다른 지역공동체 모임에서도 힘을 보탰다. 주민들의 십시일반도 더해졌다. “여기 음료수, 꿀, 약과, 생수 등은 인근 상가에서 후원한 거예요. 잔치에 쓸 재료를 사면서 떡국 잔치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후원해줬어요. 덕분에 오늘 잔치가 더 풍성해졌죠.” 방아골사람들 협동조합 전명숙 이사장은 ‘같이 일한 사람들도 놀랄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한 것이 우리 동네의 매력’이라고 덧붙인다.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한 마을 안에서 스스럼없이 도움을 청하고 자연스럽게 도우며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의 존재는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도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럽게 품나눔을 체득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글 편집부